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5. 12.(월) 18:00

“자연과 예술의 어우러짐”, 프랑스 낭트에서 ‘한국의 봄’ 축제 개최

제12회 한국의 봄(Printemps Coreen) 축제, 프랑스 낭트에서 5월 14일 화려한 개막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 원장 이일열)은 오는 5월 14일(수)부터 6월 1일(일)까지, 프랑스 문화예술의 도시 낭트에서 <제12회 한국의 봄 축제>를 개최한다. ‘자연의 조화와 장엄함(Harmonie et Grandeur de la nature)’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자연과 예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 문화의 진면목을 프랑스 현지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한국의 봄’ 축제는 낭트를 기반으로 한-프 양국 예술가들과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봄’ 협회와 문화원이 2013년 처음 창설하여 낭트시와 메트로폴 등 여러 기관의 지원을 받아 매년 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제주시와 제주 콘텐츠 진흥원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협력 아래, 더욱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현지 관객을 맞이한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담은 특별 전시

낭트 코스모폴리스 국제교류재단(Espace Cosmopolis)에서 열리는 메인 전시는 한국의 자연과 인간의 삶을 시각 예술로 풀어낸 기획 전시로, 제주도, 광주의 무등산, 나주 세 지역을 통해 한국의 고유한 자연의 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사진작가 김형선의 해녀 인물 사진, 정상기의 ‘Red Gyeowoosari’ 시리즈, 비디오 아티스트 장-줄리앙 푸스의 작품은 제주도의 자연과 해녀의 삶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관객이 자연과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끈다. 또한 김옥렬, 최진경, 전하은 작가들이 참여하여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의

장엄함을 담고, 한국 전통 정원의 정수인 소쇄원의 풍경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한국의 천연염색 예술 전통을 이어가는 도시 '나주'의 공예 및 직물 작품과 장인들의 시연도 준비되어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예술 전시를 넘어, 한국인의 자연관과 그 속에 담긴 삶의 철학을 서사적으로 풀어내며, 한국 문화의 깊이와 감성을 프랑스 현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과 영화, 전통문화 체험 행사까지

전시뿐만 아니라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관람객을 맞이한다. 주요 공연으로는 ▲가야금 명인 최진 교수의 독주회 ▲전통음악과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융합한 음악을 선보이는 <신노이> ▲거문고와 콘트라베이스의 실험적인 앙상블 <삼인동락> ▲제주인의 삶과 자연을 노래하는 그룹 <더 퐁낭>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도 ▲제주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물꽃의 전설>과 <우도 해녀의 노래>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씨네 콘서트 ▲K-POP 콩쿠르와 마스터클래스 ▲나전칠기 및 서예 워크숍 ▲한국 노래방 이벤트 등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일열 문화원장은 "이번 한국의 봄 축제를 통해 한국의 자연과 예술이 프랑스 관객들에게 깊이 전달되고, 양국 간 문화 교류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정주 축제 예술감독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의 진수를 알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낭트 한국의 봄 축제가 한국 문화 거점 축제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낭트 한국의 봄> 행사 포스터

담당 부서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이일열 (+33 01-4720-8415)
		담당자	실무관	김지인 (+33 01-4720-84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 **<낭트 한국의 봄> 행사 포스터**